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Weekly 2023년 제85호
2023.12.14.(목)

I.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국 정책·통상 이슈

- 【한국】 범정부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공급망안정위 설치
- 【이탈리아】 이탈리아, 中 ‘일대일로(一帶一路)’ 공식 탈퇴 선언
- 【EU】 EU 이사회, 탄소중립산업법(NZIA) 관련 입장 확정

주요 산업별 이슈

- 【에너지】 COP28 합의문 초안서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 빠져
- 【배터리】 애플, 아이폰 16 배터리 인도 생산 추진...글로벌 공급망 다각화
- 【전기차】 태국 내각, 전기차 보조금 정책 EV 3.5 승인

주간 이슈 포커스

- 【EU, 통상】 EU, 통상 위협 대응 조치(ACI) 12.27일 발효 예정

원자재 뉴스 PLUS

- 【12.1주 원자재 동향】 中 화학비료 원료 ‘인산이암모늄’ 수출 제한...할당관세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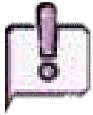
II. 공급망 더 알아보기

KOTRA, 中 정부 관계자에게 듣는 ‘외자유치·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정책’

III. 공급망 소식통

KOTRA, 2024 글로벌 의료기기 수출상담회(GMEP) 참가기업 모집
소부장산업 공급망센터 카카오톡 채널 오픈 기념 연말 구독자 후기 이벤트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주요국 정책·통상 이슈



한국

범정부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공급망안정위 설치

- ① 12.1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차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급망 기본법' 후속 조치 추진계획**을 발표
 - ▶ 정부는 '24.6월까지 중앙행정기관장과 경제·안보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급망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며, '24년 하반기 공급망 안정화 정책·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이 확정되면 소관 부처는 이듬해 1월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
 - * 공급망 안정화·위기대응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산업통상자원부 등 개별부처 차원의 공급망 관리를 범정부적 체계로 확대·강화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정부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 총 25명으로 구성
- ② 또한, 요소·흑연 등 우리 경제에 필수적인 광물에 대한 **각 부처별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한국수출입은행에 **최대 10조 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조성키로 함
 - ▶ 필수 물자와 원재료를 '24년 하반기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기존 200개 핵심 품목 외에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추가 지정할 전망
 - ▶ 또한, 개별 기업의 수입선 다변화 및 시설 투자 등 지원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은 정부 보증을 받아 공급망 기금 채권을 발행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을 마련할 계획

출처: 한국경제('23.12.11), 헤럴드경제('23.12.11)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이탈리아

이탈리아, 中 '일대일로(一帶一路)' 공식 탈퇴 선언

- ① 12.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안사(ANSA)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中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의 공식 탈퇴 의사**를 담은 서한을 中 정부 측에 전달하였다고 보도
 - * 중국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육·해로를 연결해 거대한 경제권을 만든다는 구상으로, 시진핑 中 국가주석이 '13.8월 카자흐스탄에서 최초 제안한 이니셔티브
 - ▶ 이탈리아는 '19년 주세페 콘테 총리 시절 주요 7개국(G7) 국가 중 유일하게 中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22.10월 취임한 멜로니 총리는 "더 이상의 협정갱신은 없다"고 선언하며 일대일로 탈퇴를 추진
- ② 이탈리아가 일대일로에서 돌아선 배경에는 이탈리아의 對中 수출액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경제적 이유로 탈퇴를 선언한 것으로 전망**
 - ▶ 안토니오 타야니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22년 이탈리아의 對中 수출액은 165억 유로(약 23조 5천억 원)에 그쳤으나, 프랑스는 230억 유로(약 32조 7천억 원), 독일은 1,070억 유로(약 152조 3천억 원)에 달했다"고 밝힘

출처: ANSA('23.12.6) 등 언론보도 KOTRA 밀라노무역관 종합

EU

EU 이사회, 탄소중립산업법(NZIA) 관련 입장 확정

- 12.7일(현지시간) EU 이사회는 친환경 전환에 필수적인 기술·제품 제조 생태계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ZIA)*’에 관한 입장을 확정

* 탄소중립 전환 핵심 기술의 산업적 보급을 가속화하고 유럽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핵심원자재법(CRMA) 및 EU 전력시장 개혁과 함께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za)’ 이니셔티브의 핵심 법안

- ▶ ▲허가절차 간소화 및 전략적 프로젝트 우대를 통한 핵심 기술 투자 환경 개선, ▲전략 기술 제품의 시장 접근성 강화, ▲핵심 기술 분야 인재육성, ▲공공조달 사업 지속가능성 강화, ▲혁신 기술 테스트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시행 등 내용 포함
- ▶ 특히, 태양광패널·풍력터빈·배터리·히트펌프 등 전략적 기술 제품의 EU 전체 수요의 40%를 역내에서 생산하고, 탄소 포집저장(CSC)의 경우 '30년까지 연간 CO2 주입 역량 최소 5천만 톤 달성 등 목표 제시

- 이번 EU 이사회의 법안 관련 입장은 집행위 법안을 대체로 수용한 반면, 법 적용 범위, 허가 부여 절차, 공공조달, 인재육성 및 연구혁신 등 일부 사항을 수정한 것으로 평가

- ▶ EU 이사회가 동 법안에 대해 입장을 채택함에 따라, 지난 11월 입장을 확정된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와 3자 협상을 통해 현 유럽의회 임기 중 최종 타협안을 확정할 계획

출처: KBA Europe('23.12.09)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주요 산업별 이슈

에너지

COP28 합의문 초안서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 빠져

- 12.1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폐회를 하루 앞두고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UAE)가 작성해 공유한 합의문 초안에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 문구가 빠져있다고 보도

- ▶ 미국·캐나다·노르웨이를 비롯해 유럽연합(EU)과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 등 100여개국은 합의문에 화석연료의 퇴출을 의미하는 문구를 삽입하기를 희망했으나,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은 이에 반대해왔음
- ▶ 올해 총회에서는 해당 문구를 두고 각국이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폐회 하루 전까지 공동 선언문 합의가 진통을 겪고 있음

- 초안에는 ‘단계적 퇴출’ 대신 '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공정하고 질서있게, 공평한 방식으로 화석연료의 소비와 생산을 모두 줄이는 내용 등이 포함된 8개의 옵션 제시

- ▶ 해당 내용에는 ▲'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능력 3배 확대, ▲배출가스 저감 장치 없는 석탄 화력발전소의 신속한 폐기와 신규 허가 제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확충 등이 포함되었음

출처: 연합뉴스('23.12.11), SBS('23.12.12)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배터리

애플, 아이폰 16 배터리 인도 생산 추진...글로벌 공급망 다각화

- ① 12.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24년 출시할 예정인 아이폰 16 배터리가 인도에서 생산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부품 공급업체들에 이미 이러한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짐
 - » 中 더사이(DESAI) 등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인도에 신규 공장 설립을 권유받았고, 대만 심플로(simplo)도 향후 추가 주문에 대비해 인도 내 생산 확대를 요청받음
 - » 소식통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16 배터리 공급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더 많은 아이폰 배터리 생산지를 인도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힘
- ② 또한, 인도 연방정부 전자·정보통신(IT) 담당 부장관은 “日 TDK(애플 공급업체)가 인도서 아이폰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언급
 - » 日 TDK는 '25년 가동을 목표로 델리주에 인접한 하리아나주 마네사르에 180에이커(73만 m²) 규모의 설비를 구축중이며, 생산된 제품은 인도산 아이폰에 사용될 예정
 - » 이에 앞서 지난달 말 애플 최대 공급업체인 대만 폭스콘은 인도의 신규 제조 시설에 15억 달러(약 2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출처: 파이낸셜타임즈('23.12.06), 서울경제('23.12.07)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전기차

태국 내각, 전기차 보조금 정책 EV 3.5 승인

- ① 11.1일(현지시간) 태국 전기차정책위원회(EV Board)는 전기차 생산 촉진을 위해 '24년~'27년 적용되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EV 3.5)을 승인
 - » EV 3.5 패키지를 통해 신규 전기차 1대당 약 5~10만 바트(약 185~37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26년까지 수입 전기차와 태국 국내 생산 전기차의 비율을 1:2로 의무화하고, '27년까지 비율을 1:3으로 확대할 예정
 - » 기존의 EV 3.0 패키지는 신규 전기차 1대당 7~15만 바트(약 258~442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해당 패키지는 '23.12.31에 종료될 예정
- ②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태국 EV 시장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며, EV 3.5 패키지를 통해 아세안 지역 내 전기차 생산 핵심 플레이어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
 - » 中 전기차 업체는 태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의 80%를 차지하면서 태국 EV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유럽 제조업체도 관심을 보이고있어 태국 전기차 시장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

* '23.1~10월 신규 등록 차량 기준 태국 내 배터리 전기차 시장 점유율: 中 BYD(38%) > NETA(18%) > MG(17%) > TESLA(12%) 등

출처: KOTRA 방콕무역관 종합

EU, 통상

EU, 통상 위협 대응 조치(ACI) 12.27일 발효 예정

12.7일(현지시간) EU는 역내 통상 체계를 위협하거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3국에 대한 통상 위협 대응 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ACI)를 12.27일부로 발효 예정임을 EU 관보에 공표

동 규정은 EU 집행위가 시행할 수 있는 제3국에 대한 일련의 대응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협이 된다고 간주할 시 해당 제3국에 피해복구를 요구 또는 EU 역내 진출 제한 조치 시행 가능

통상 위협 대응 조치(ACI) 개요

배경	» EU에 대한 역외국의 통상 및 경제적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EU 차원의 대응안 마련 필요성 대두 » '21년 리투아니아의 대만대표부 개설 허용에 대한 中 정부의 경제적 강압을 계기로 역내 관련 입법이 본격화
방식	» 제3국이 EU 및 회원국에 경제적 압력(Economic Coercion)*을 행사하는 경우, EU는 해당 위협 수준을 고려하여 비례적인 대응 조치를 시행 * 교역·투자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적용 또는 적용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EU와 회원국의 정책 결정에 개입하는 행위 일체
규제 대상	» 원칙적으로 교역대상국 정부이나, 해당 내용과 관련된 기업 또는 자연인에게도 규제 적용 가능
대응 조치	① 상품·서비스 무역에 대한 관세 상향 또는 수출 라이선스 취소 ② 지적재산권 및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 ③ 공공조달시장 및 자본시장 접근 제한 ④ 화학 및 위생검역 규제 상품 승인 제한 등

통상 위협 대응 조치 시행 절차



통상 위협 대응 조치가 발효될 경우, 제3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한 독자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EU의 공동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분석

출처: KBA Europe('23.10.5.) 등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원자재 뉴스 PLUS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참고]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화학

中 화학비료 원료 '인산이암모늄' 수출 제한...할당관세 연장

12.7일 中 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플랫폼 화학비료망에 따르면, 거시경제 주무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발개위)가 지난달 인산이암모늄*에 대한 수출 검사를 중단하라고 통지 [출처: 국내언론 종합]

* 농작물에 작용하는 3대 영양소 중 하나로 화학비료의 원료로 널리 활용되며, 한국에서 '23.1~10월 수입한 인산암모늄의 95.3%가 중국산임

- 요소수 대란과 같은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이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비축 상황을 파악하고 수입선 다변화 등 대책을 점검
- 현재 인산이암모늄 완제품(1만 톤), 원자재(3만 톤) 등을 확보하고 있어 '24.5월까지 공급이 가능하며, 정부는 인산이암모늄의 할당 관세를 '24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함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12월 1주)

◆ [비철금속] 美 달러화 가치상승 및 中 경기둔화 우려로 인한 동 가격↓, 공급과잉으로 니켈 가격↓

품목	연평균 (US\$/톤)			주간평균 (US\$/톤)		
	'22년	'23.11월	전년비(%)	11.5주	12.1주	전주비(%)
동	8,797	8,492	△3.5	8,346	8,308	△0.5
니켈	25,605	21,971	△14.2	16,398	16,253	△0.9
아연	3,478	2,662	△23.4	2,506	2,429	△3.1

* 자료원: LME

(동) 美 연준의 금리인상 종료 전망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관의 中 국가신용등급 전망 하향조정 및 경기지표 부진 등으로 전기동 가격하방압력이 발생했으며, 中 디플레 우려도 하방압력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분석

»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中 국유기업 및 지방정부의 과도한 부채로 인한 재정리스크를 이유로 中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1으로 유지하는 대신 전망을 '안정적' → '부정적'으로 하향시킴

(니켈) 美 달러 가치 상승에 따른 투자수요 둔화 및 인니 정련니켈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공급과잉 심화로 재고량이 증가하면서 니켈시장 하방압력 발생

◆ [철강] 中 경기불안 우려 및 재고량 확대로 철광석 가격↓, 계절성 수요 확대로 연료탄 가격↑

품목	연평균 (US\$/톤)			주간평균 (US\$/톤)		
	'22년	'23.11월	전년비(%)	11.5주	12.1주	전주비(%)
연료탄	348.65	176.97	△49.2	134.55	142.93	6.2
원료탄	364.99	292.63	△19.8	324.80	333.15	2.6
철광석	120.26	117.42	△2.4	134.54	132.96	△1.2

* 자료원: 연료탄(호주 뉴캐슬 FOB 기준, ICE 기준), 원료탄(호주 FOB 기준, Premium Low Vol),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 기준, 62%분광)

(철광석) 中 국가신용등급 전망 하향조정 등 경기불안 우려 및 中 철광석 재고량 확대로 가격하방압력 발생

» 中 물가지수 변동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두 달 연속 마이너스 값을 기록, 철광석 재고량은 3주연속 증가

(유연탄) 12.1주차 국제유가(WTI)가 배럴당 71.23달러로 전주대비 3.8% 하락하며 7주 연속 하락에도 불구하고, 연료탄 가격은 계절성 수요 확대로 전주대비 6.2% 상승

» 연료탄 일일가격은 톤당 135달러 → 153달러선으로 상승세 시현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12월 1주)

◆ [희소금속] 철강·아차전지 분야 수요 부진 속에 가격↓ 지속, 산화세륨은 현물 판매 관망세로 단기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코발트: U\$/lb)			주간평균 (U\$/톤) (코발트: U\$/lb)		
	'22년	'23.11월	전년비(%)	11.5주	12.1주	전주비(%)
페로망간	1,551	1,278	△17.6	1,135	1,130	△0.4
탄산리튬	72,290	37,794	△47.7	16,583	14,190	△14.4
수산화리튬	67,180	38,107	△43.3	15,995	14,441	△9.7
코발트	31.20	17.90	△42.6	17.10	17.00	△0.6
산화 디스프로슘 (희토류)	380,494	325,941	△14.3	373,700	379,100	1.4
산화 네오디뮴 (희토류)	133,607	79,647	△40.4	69,900	67,400	△3.6

* 자료원: 페로망간(중국 FOB 75%), 탄산·수산화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56.5%min), 코발트(유럽 in-warehouse 99.8%min), 산화디스프로슘(중국 FOB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 99.5~99.9%)

📌 (페로망간) 中 철강산업 수요 부진과 시장 공급물량의 증가 등으로 中 내수가 하락, 수출가도 전주대비 톤당 5달러 하락

📌 (탄산리튬) 글로벌 전기차 수요 부진과 향후 시장에 대한 부정적 전망으로 수요업체들은 탄산리튬 원료 구매를 최소화하여 재고 활용 운영, 톤당 10만 위안 이하까지 가격하락

▶ 수산화리튬 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24년에도 공급 증설에 따른 가격 상방 제한 전망

▶ 中 다수 리튬화합물 제조업체는 '24년에는 수산화리튬보다 탄산리튬 증설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

📌 (코발트) 中 금속 생산량 증가와 '24년 추가적인 증설 예정으로 시장 내 가격 하향 전망 우세, 다수 수요 업체는 가격 하향 전망하며 구매 재고량 최소화

▶ '24년도 中 코발트 금속 생산개파 35,000톤 초과로 '23년 대비 46% 이상 급증 전망

▶ 12.5일 中 Huayou Cobalt社, Vale·Ford와 합작투자자 인도네시아 솔라웨시 Kolaka MHP(연 12만 톤 캐파) 프로젝트 진행 계획 발표

📌 (희토류) 산화네오디뮴은 늘어난 재고와 극도로 부진한 현물 수요 속에 가격 지속 하락, 산화세륨은 주요 공급업체의 현물 판매 관망세로 단기 가격상승 전망

◆ [에너지] 美 원유 재고량 증가, 中 경제지표 부진 및 신용등급 전망 하향으로 국제유가 하락세

품목	연평균 (\$/배럴)			주간평균 (\$/배럴)		
	'22년	'23.11월	전월비 등락폭	11.5주	12.1주	전주비 등락폭
두바이유	96.41	83.55	-6.20	82.66	77.03	-5.63
브랜트유	99.04	82.03	-6.67	81.29	75.88	-5.41
WTI	94.33	77.38	-8.09	75.83	71.06	-4.77

* 자료원: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등

📌 (국제 유가) ▲OPEC+ 회의 결과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여론 지속, ▲美 원유 재고량 증가, ▲中 원유 수입량 감소, ▲中 신용등급 전망 하향, ▲부진한 주요국의 경제지표 등으로 인해 유가 하락



공급망 더 알아보기

中 정부 관계자에게 듣는 ‘외자유치·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정책’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지원팀, 베이징무역관

11.21일(현지시간) 韓 산업통상자원부와 中 상무부 주최 하에 KOTRA 베이징무역관과 중국한국상회는 우리 기업의 중국 외국인 투자 촉진 정책과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정책 등에 대한 이해 재고와 경영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진출 한국기업 대상 정책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행사 개요 및 발표 내용

▶ ‘중국진출 한국기업 대상 정책 설명회’ 행사 개요

- (일시/장소) 11.21(화) / 중국 베이징 포시즌스 호텔
- (주최) 韓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中 상무부 아주사(亞洲司)
- (내용) 외국인 투자 촉진 정책 소개 및 中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제도 설명, 관계자 질의응답 등
- (참석) 中 상무부 관계자, 재중(在中) 한국대사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국한국상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명

〈설명회 발표 내용 및 연사〉

발표 내용	연사
중국 외국인투자 촉진 정책	중국 상무부 외자사 웨이웨이 국제협력과장
중국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정책 등 최근 동향	중국 상무부 수출입관계국 주펑 정책규칙과장

▶ 주요 발표 내용

- (외국인투자 촉진 정책) 中 상무부 외자사(外資司) 웨이웨이 국제협력과장은 정국 정부가 투자 환경 개선 및 법제도 정비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지난 8월 中 최고 행정부인 국무원에서 발표한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및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관한 의견’의 내용을 상세히 해석하며 대외개방 지속 확대 의지 피력

* ▲경영환경 개선, ▲내외자 기업 동등 대우, ▲외자기업 투자 권익에 대한 보호 강화, ▲금융·세제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하며, ▲‘공공조달법’ 개정, ▲‘중국 내 생산’ 관련 구체적 표준 제정 가속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보장할 것을 명시

- 이어 “내외자 기업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별적 정책·제도에 대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외자기업 관계자를 위한 녹색 통로, 비자 발급, 세금 우대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재중(在中) 외자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올해 300여 개사와 14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외자기업과의 교류를 상시화하고 있다고 밝힘

-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정책 등 최근 동향)** 中 상무부 수출입관제국의 주평 정책규칙과장은 中 수출통제법 체계, 목표와 이념, 통제품목, 허가증 발급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최근 수출통제를 시작한 갈륨·게르마늄·흑연 등 관련하여 설명

* 이중용도 품목: 군수품, 핵, 기타 국제의무 이행과 국가안전 유지와 관련된 물품, 기술, 서비스 등

- '20년 말 '수출통제법' 시행 이후 중국은 지속적으로 법제도와 통제대상품목에 대한 준비를 실시해왔으며, 국가안전, 국제 규범 및 기술수준의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품목을 증가·조정**할 수 있다고 밝힘

* 中 정부는 최근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문 사이트(중국수출통제정보망)를 운영중 (<http://exportcontrol.mofcom.gov.cn>)

- **(이중용도품목 수출허가 프로세스)** 이중용도품목 수출을 위한 기업 자격 등록 →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허가 신청 → 허가 심사 → 허가증 취득 → 원기록 보존
- 中 담당 부처가 ▲중국 국가안전 및 이익, ▲국제의무 및 대외 약속, ▲수출유형, ▲통제품목의 민감도, ▲수출 목적 국가 및 지역,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 ▲수출사업자의 신용기록, ▲법률 및 행정규정의 기타 요소 등에 따라 허가증 발급

〈中 수출통제 법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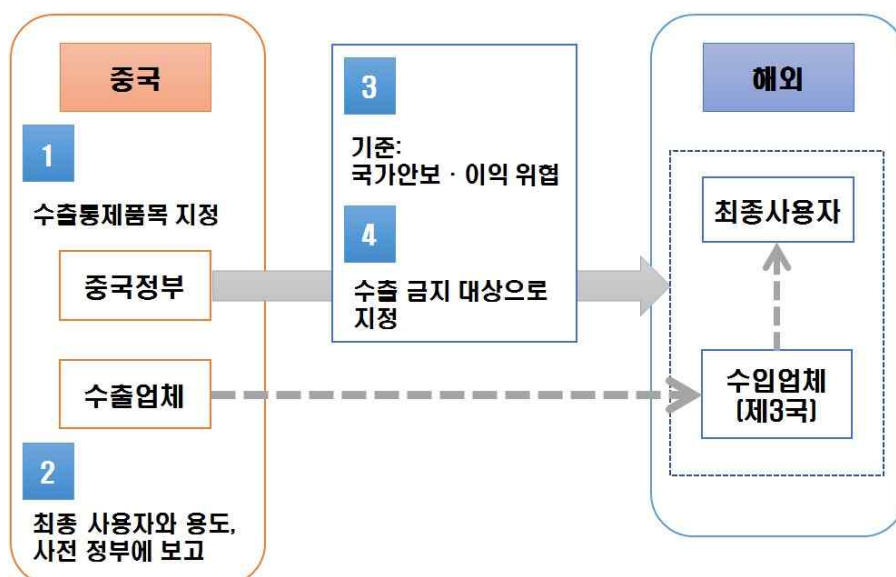
품목	조례	품목	행정법규
화학품	감독관리 대상 화학품 관리조례	이중용도 품목·기술	이중용도 품목과 기술 수출 통용허가 관리방법
핵	핵 수출통제조례		이중용도 품목과 기술 수출입 허가증 관리목록
			이중용도 품목과 기술 수출입 허가증 관리방법
	군수품 수출관리조례		일부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관련 업무 시범 전개에 관한 통지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
			이중용도 품목 수출입 허가증 페이퍼리스 관리에 관한 통지
군수품	핵 이중용도 및 관련 기술 수출관리조례	화학품	관련 화학품 및 설비와 기술 수출통제방법
무기 및 관련 기술	미사일 및 관련 물품과 기술 수출통제조례	흑연	흑연 품목의 임시 수출통제조치 최적화에 관한 통지
			흑연품목 임시수출통제조치 최적화 조정에 관한 공고
생물류	생물류 이중용도 품목 및 관련 설비와 기술 수출통제조례	갈륨· 게르마늄	갈륨·게르마늄(저마늄) 및 관련 품목 수출통제 실시에 관한 공고

- **(최근 수출통제 발표 품목 관련)** 中 상무부 수출입관제국의 주평 정책규칙과장은 최근 수출통제품목으로 지정한 갈륨·게르마늄과 흑연 품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힘
- (갈륨·게르마늄) 수출허가증을 적시에 발급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 통용 허가 방식*을 적용해 수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밝힘
- * 통용허가: 中 상무부가 비준한 유효기간과 범위 내에서 여러 차례 신청 및 수렴이 가능한 수출허가
- (흑연) 흑철강·야금·화학공업 등 저민감 흑연 품목을 수출통제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배터리 음극재 등에 사용되는 흑연 제품이 임시통제에서 정식 통제품목으로 전환됐다고 하더라도 관리 절차에 변화가 없어 기업들이 우려할 사항은 없다고 강조함

Q&A 세션

- ▶ (Q1) 중국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에 적시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로 투자 시 규제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나요?
- (웨이웨이 국제협력과장)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에도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퇴출산업목록’ 등 규제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의 기타 진입 문턱은 내외자 기업 모두에 적용되므로, 외자기업은 중국 시장진입 전 지역별·업종별 규정과 제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Q2) 12.1일부 수출통제가 시행된 흑연 품목의 경우, 시스템에 입력 시 HS코드가 부재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국 상무부의 해결방안이 있나요?
- (주평 정책규칙과장) 中 상무부와 해관총서의 시스템이 연결되고, 12.1일 0시부터 해당 HS코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규 HS코드와 정책 등으로 일시적 혼란은 예상되나, 통관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기업들에 도움을 주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 ▶ (Q3) 이중용도 품목 수출 허가 심사기한이 근무일 기준 45일입니다. 이보다 간소화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주평 정책규칙과장)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심사는 중국 국가안보와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규정에 맞춰 최종용도와 최종사용자 등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여 신청할 경우, 통용 허가 방식을 적용해 수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 ▶ (Q4) ‘이중용도 품목 관리 조례’ 최종안 발표 시점은 언제인가요?
- (주평 정책규칙과장) 이중용도품목 관리조례는 '23년 국무원 입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용도품목 관리조례 입법 절차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최종안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참고] 〈中 수출통제 관리제도〉





공급망 소식통

2024 글로벌 의료기기 수출상담회(GMEP) 참가기업 모집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글로벌 의료기기 수출상담회 GMEP 2024

일정 2024년 3월 14일(목) - 15일(금) / COEX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협업 

주요 프로그램



1:1 비즈니스 상담회

- 규모 : 국내외 370여개사
- 분야 : 디지털 헬스케어, 진찰 및 진단용기기, 치과 기자재 등 의료기기 전반



계약 체결식

- 대상 : 계약체결 바이어 및 국내기업
- 사전 파악된 계약(30만불 이상)건 지원 예정
- 현장에서 결정되는 계약체결 추가지원



의료기기 등록제도 설명회

- 주제 : EU MDR 동향 및 대응방안 소개
- 대상 : 국내기업 관계자 50여명 내외
- 세션별 발표 60분, Q&A 15분, 한-영 동시통역 지원

신청 방법

- GMEP 2024 홈페이지 (<https://gmep.kotra.biz/>)에서 사업신청
- * KOTRA 회원사만 신청 가능

- 문의 : KOTRA 바이오의료팀
(me_hq@kotra.or.kr, 02-3460-7628/7623)



홈페이지

소부장산업 공급망센터 공식 카카오톡 채널 오픈 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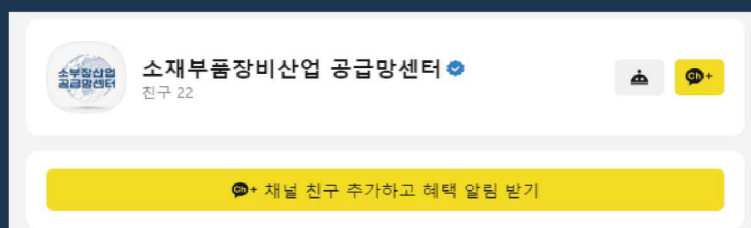
연말 구독자 후기 이벤트

2023.12.7~2023.12.20

2023년도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를 구독해주신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카카오톡 공식 채널이 오픈함에 따라, 연말 구독자 후기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수 의견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도 증정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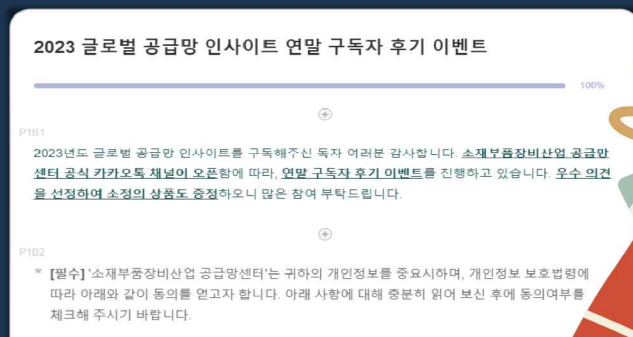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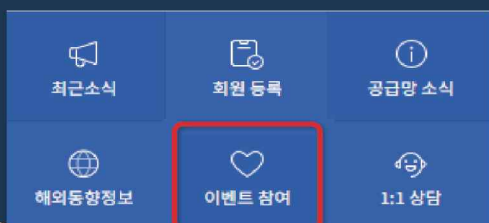
STEP 1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여 소부장산업 공급망 센터 채널 구독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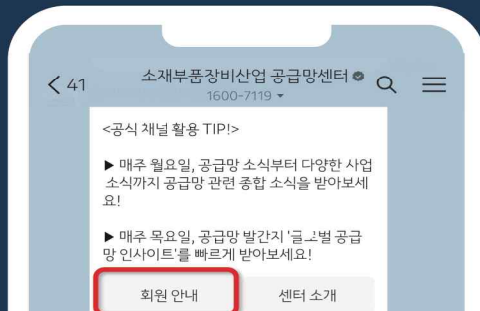
STEP 2

‘채널 메뉴’ → ‘이벤트 참여’ 메뉴탭 클릭하여 후기 작성



(선택) STEP 3

소부장산업 공급망센터 회원가입 진행
(‘회원 안내’ → ‘회원가입 바로가기’ 버튼 클릭하여 진행)



Q. 회원가입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회원 가입 시 매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공급망 해외 이슈, 해외 최신 자료 등 공급망 관련 종합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매주 정기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수 의견 선정 시 경품 안내



최우수 3명



우수 5명



장려 10명

* 경품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는 86호(12.21일) 발표 예정

글로벌 경제지표 (23.12.12.화)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환율

	'21말	'22.말	'23.11말	12/8	12/11	12/12	전일비	22말비
₩/US\$	1,188.80	1,264.50	1,290.00	1,306.80	1,316.50	1,314.00	△0.19%	3.91%
선물환(NDF, 1월물)	1,190.00	1,265.30	1,287.80	1,305.10	1,314.30	1,311.80	△0.19%	3.68%
₩/CNY	186.51	181.44	180.90	184.27	183.46	183.12	△0.19%	0.93%
₩/¥100	1,032.48	945.56	877.79	907.31	904.38	903.78	△0.07%	△4.42%
Y/US\$	115.14	133.73	146.96	144.03	145.57	145.39	△0.12%	8.72%
US\$/EUR	1.1318	1.0617	1.0974	1.0785	1.0768	1.0768	0%	1.42%
CNY/US\$	6.3681	6.9630	7.1244	7.1563	7.1832	7.1744	△0.12%	3.04%

* 22년 평균 환율: (₩/US\$) 1292.2원, (₩/¥100) 983.8원, '23년 평균 환율('23.1.1~현재): (₩/US\$) 1306.2 (₩/¥100) 932.6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2년 최저(해당일)	'22.12.31	'23.12.11(전일)	'23.12.12	전일비	'22년최저비	'22년말비
원유(두바이)		71.83(12.12일)	78.77	76.63	76.23	△0.4 △0.5%	4.4 6.1%	△2.5 △3.2%
철광석		79.50(10.31일)	117.35	136.85	138.05	1.2 0.9%	58.6 73.6%	20.7 17.6%
비철 금속	구리	7,000.00(7.15일)	8,387.00	8,275.50	8,272.00	△3.5 △0.0%	1272.0 18.2%	△115.0 △1.4%
	알루미늄	2,080.00(9.28일)	2,360.50	2,082.50	2,090.50	8.0 0.4%	10.5 0.5%	△270.0 △11.4%
	니켈	19,100.00(7.5일)	30,425.00	16,305.00	16,265.00	△40.0 △0.2%	△2835.0 △14.8%	△14160.0 △46.5%

반도체

	'21	'22	'23.9월	'23.10월	'23.11월	12/7	12/8	12/11	12월(~11)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 YoY)	3.99 29.9%	3.07 △23.0%	1.48 △41.3%	1.55 △35.6%	1.66 △23.1%	1.73 △15.0%	1.74 △14.4%	1.74 △14.1%	1.73 △15.4%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 YoY)	6.55 14.7%	7.25 10.7%	6.32 △3.8%	6.40 △2.6%	6.42 △1.7%	6.41 △2.0%	6.40 △2.2%	6.40 △2.2%	6.40 △1.9%

S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12.30	'23.11.17	11.24	12.1	12.8	전주비(12.1)	'22년말비
SCFI	5046.66	1107.55	999.92	993.21	1010.81	1032.21	2.1%	△6.8%

BDI (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12.23	'23.12.6	12.7	12.8	12.11	12.12	전일비(12.11)	'22년말비
BDI	2217	1515	2848	2496	2483	2509	2551	1.7%	68.4%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문의

KOTRA 글로벌공급망실

gvc_monitoring@kotra.or.kr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

gvc_research@kita.or.kr



메일 구독(수신) 신청

<https://moaform.com/q/lflGnB>



카카오톡 채널 구독 신청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

협력기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Korea Petrochemical Industry Association



한국섬유산업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Textile Industries



한국수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동조합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Korea Electronics Association



한국전지산업협회

Korea Battery Industry Association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Korea Specialty Chemical Industry Association



한국철강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Korea Aerospace Industries Association



전략물자관리원

KOREA STRATEGIC TRADE INSTITUTE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기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